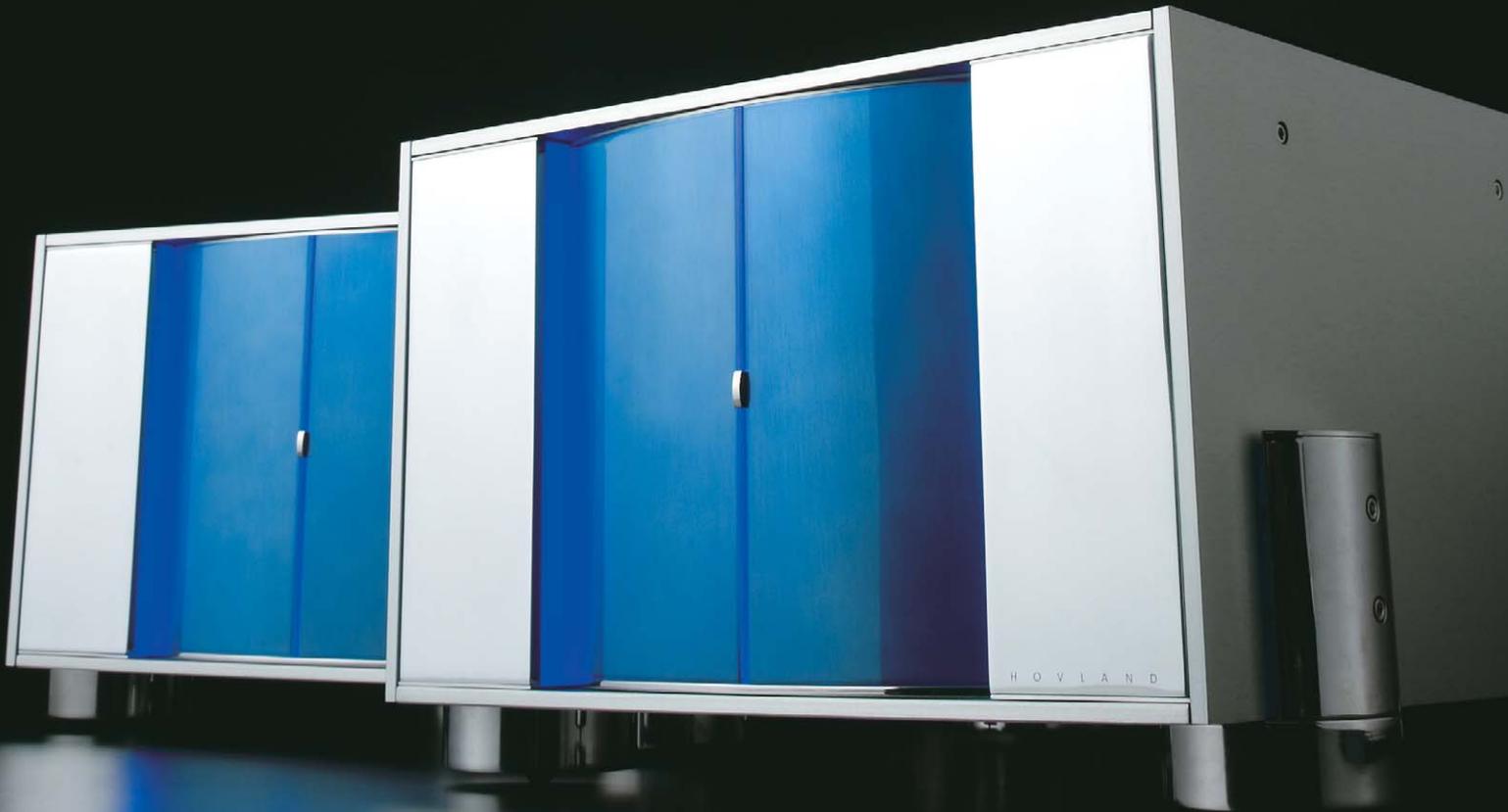


*Special* 2007년을 빛낸 오디오 시스템 16기종 [파워 앰프]



## 성충권 아래서 내려 보는 여유로운 카리스마

클 | 정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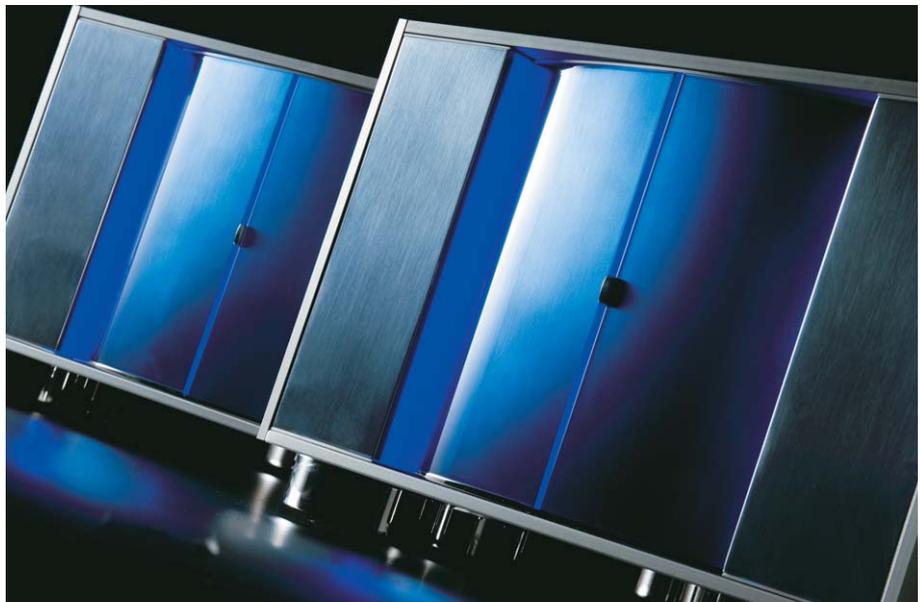
**본**격적인 리뷰 작업을 시작한 후 필자가 처음으로 접한 하이엔드 제품이 바로 이해의 베스트 오디오 제품 중 하나인 호블랜드 사의 스트라토스 파워 앰프이다. 초고가 파워 앰프로서 당시 필자에게 왔던 스트라토스의 능력은 대단했는데, 이후 여러 제품의 파워 앰프 리뷰 시 항상 레퍼런스로 삼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이 제품은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만 한 번 선택하면 다른 제품에 결코 눈 돌리는 일 없이 오랜 기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하이엔드 세계의 정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만들새를 자랑한다.

호블랜드는 뮤직 캡이라는 유명한 콘텐츠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특히 스트라토스 파워 앰프의 경우 동사 기술의 집대성을 이룬 기함격 제품이다. 모노블록 구성의 채널당 400W의 대출력과 고품위한 만들새, 그리고 디자인 감각은 한눈에도 플래그십 제품의 이미지와 초고가 파워 앰프임을 알 수 있는 완벽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늘의 성충권이라는 모델명에서 내보이는 이미지는 음의 경향과도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일체의 스트레스 없이 유유히게 스피커를 지배하는 카리스마로 연결된다. 어떤 음악을 들어도 결코 힘으로 압박하는 경향이 아니라 감싸는 듯한 이미지로 스피커를 연주하는데 이는 공간에 음악만이 흐른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재생감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프리앰프 특집을 통해 시청한 동사의 진공관 방식의 HP-200 프리앰프의 경우 자연스러움을 수반한 색채감이 일품이었는데 스트라토스 역시 이번 시청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줄 정도로 음의 채색감 측면에서 최상의 능력을 선사했다. 이는 비록 진공관과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다른 방식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향을 보여주는 일관성으로 동사의 음향 철학의 이상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솔루션 프리와의 조합으로 시청실에 준비된 다양한 스피커를 올려 보았다. 매칭이라는 변수를 떠나 펼쳐지는 스트라토스의 매력은

단순한 구동 능력 등의 표현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가볍고 유연하게 스피커를 지배한다. 이는 분명 압도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특정 스피커와의 상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스트라토스의 능력은 그 영역을 가볍게 뛰어넘어 넘보지 못할 만한 세계를 연출한다. 언급한 대로 음의 채색감에 따른 음악성, 음장 공간의 형성 등 파워 앰프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능력을 선사한다. 성충권이라는 모델명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음의 이탈감, 음장 공간의 유려함과 더불어 실체가 보이는 듯한 리얼한 묘사 능력 등 흠잡을 구석이 없을 만큼 최상의 능력을 선보인다. 다양한 스피커와의 매칭 시에도 항상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능력 역시 이 제품의 강한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특히 현을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음악의 재생에서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음악성은 한 번 들으면 쉽게 잊기 힘들 만큼 중독성 또한 대단하다. 음의 질감과 음색 측면에서 보여주는 온화한 이미지는 진공관 방식이 연상될 정도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사의 음향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점을 찾기 어려운 이 제품의 능력과 이미지는 분명 파워 앰프 분야에서 올해 최고 제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필자에게도 하이엔드 파워 앰프의 모범 답안으로 오랫동안 레퍼런스적 제품으로 존재할 것 같은 예감이다. **A**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4,650만원 · 실효출력 : 400W(8Ω) · 입력 임피던스 : 50kΩ(언밸런스), 100kΩ(밸런스)  
 · 볼티지 게인 : 26dB(언밸런스), 20dB(밸런스) · 주파수 응답 : 5Hz-20kHz(±0.2dB)  
 · S/N비 : 110dB · 하모닉 디스토션 : 0.1% 이하(1kHz)  
 · 크기(WHD) : 40.1x24.3x47.6cm · 무게 : 40.5kg

## 탄탄한 완성도와 탁월한 음악성으로

### 클 최성근

스트라토스는 호블랜드가 내놓은 야심작이라 할 만하다. 이는 호블랜드의 라인업 중 최상급 모델에 속한 것으로 8Ω에서 400W의 출력을 낸다. 원래 스트라토스란 단어의 뜻은 대류권 위의 기류가 안정된 대기층 즉, 성층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화 <에비에이터>에서 잘 보여준다. 그 당시 비행기는 높은 고도에서 날지 못했지만 지금의 여객기는 정말 높이 난다. 그래서 비행기 동체가 흔들거리거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정된 대기층에서 날기 때문이다. 전면 패널의 일루미네이션 색상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의미를 파워 앰프에 적용해 보면 막강한 전원부를 바탕으로 한 전류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스트라토스가 400W의 대출력을 가진 것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출력의 숫자보다 만듦새에 정말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메커니컬 진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로 개발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로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각 파트는 모두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 호블랜드가 직접 설계했다는 C코어 발전형으로 EII 코어와 토로이달 코어의 장점만을 고루 갖췄다고 이야기한다. 노이즈가 매우 적고 레귤레이션 성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만 하겠다.

새시는 항공기 수준을 만족시키는 알루미늄 피스를 조립하여 구성했는데 전면 패널 쪽으로는 전원 부가 탑재되어 있고 중심 쪽으로 오디오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오디오 회로 내부에는 출력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앰프 내부에 오디오 회로 쪽을 자세히 바라보면 히트싱크가 좌우 대칭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과 안으로 내부 파트를 막아주는 알루미늄 판이 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0W의 대출력을 얻을 경우 상당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

데 큰 몸체 자체를 히트싱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생각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스트라토스는 히트싱크를 별도의 알루미늄 판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대류식 냉각이 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해 상판에는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구멍이 16개가 있다. 뿐만 아니다. 4Ω에서 690W의 대출력을 얻기 위해선 굉장한 크기의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미세한 떨림도 있기 마련인데 메커니컬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트랜스포머는 별도의 새시에 수납된다. 물론 수납 그 자체 의미보다 엘라스토퍼 서스펜션을 통해 안티-바이브레이션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제품은 만듦새에 있어 완벽하다는 것이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음은 온기감이 있으며 굉장히 유연하다. 소누스 파베르나 B&W와 같은 성향의 스피커와 연결할 경우 그 능력이 십분 발휘되는데,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고도 이 물건은 명기 중에 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들어보면 밀려오는 음악적 감동에 몸이 떨릴 정도이니 말이다.

근래에 보기 힘든 설계의 파워 앰프로 오디오적 쾌감도 가지고 있지만 호블랜드 전통적 음악성 높은 음색이 실려 있다. 호블랜드에 별 호감을 느끼지 못한 이들도 스트라토스엔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A**

